



왕시명(문익환 역) 공민규(장준하 역) 오하은(이희호 역) 이나영(박용길 역)

뮤지컬로 만나는 문익환 목사

‘늦봄’ 문익환 목사(1918~1994). 신학자이자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그는 평생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1976년 명동 ‘3·1민주구국선언’으로 옥고를 치렀고 1980년 내란예비음모죄로 재수감됐다. 그는 엄숙한 유신과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에 매진하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의 호 ‘늦봄’은 계절의 의미보다 ‘늦게 눈을 뜨고 세상을 늦게 보았다’는 겸허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문 목사가 타계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거 30주기를 기념하는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뮤지컬 ‘늦봄의 길’을 오는 23일(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문 목사 생애 중 고난과 격동의 시기였던 1970~80년대에 초점을 맞췄다.

‘늦봄의 길’은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2021년 11월 낭독콘서트 형식으로 첫 선을 보였다. 2023년 11월 경기도 성남과 화성에서 갈라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제작에 문민지 프로듀서, 공연 연출과 각색은

신학자이자 시인·사회운동가 서거 30주기 ‘늦봄의 길’ 공연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황지람 연출이 맡았다. 황 연출은 역사적 사실을 다룬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켜 서사성을 배가했다. 새로운 장면, 인물을 매개로 당대 행해졌던 검문, 분신사건 등도 다뤄 역동성을 가미했다.

북간도에서 태어난 문 목사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인 북간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한인들이 건립한 명동소학교와 은진중학교를 거쳐 평양의 숭실중학교, 북간도의 용정광명학교를 다녔다.

문 목사의 활동은 1978년 유신헌법비판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1980년 YWCA 위장결혼사건, 1986년의 인천 5·3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그는 재야 통일관련 단체의 중심점으로 활동한다.

작품은 모두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은 뜻깊은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꿈, 우정을 그렸다. 2막은 문 목사의 민주구국선언문 작성을

계기로 투옥되는 장면부터 해외에 소식을 알리는 등 탄압에 맞서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문 목사의 아내 박용길장모(이나영 분)를 필두로 투옥자 아내인 공덕귀(장유정), 이희호(오하은), 페이문(김재인)의 하모니가 이목을 끈다. 구속자 가족들은 옥바라지를 하며 기독교 고난과 승리의 상징색인 보라색 옷을 입고 부채와 우산 등을 들며 시위를 한다.

이번에 현실에 통탄하는 인물인 한지영(양희연),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하는 이우정 장모(정채린) 등 출연 배우들은 일인다역을 소화하며 당대를 대변하는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노희용 대표 이사는 “이번 작품은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기념해 기획한 뮤지컬 작품으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문 목사의 열망을 담았다”며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람료는 S석 1만원, A석 5000원이며 예약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르플래닛’ 송년 연주회

12월 8일 광주예술의전당

올해 창단한 공연기획단체 ‘아르플래닛’은 다양한 리사이틀, 콜라보 무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창단 1주년을 맞은 이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연말 분위기를 돋우는 송년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아르플래닛(대표 최혜지)이 연말 공연 ‘협주곡의 밤’을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기존 오케스트라 편성이 아닌 피아노 반주 위주로 협주곡을 편곡해, 관객에게 독특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비롯해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등이 울려 퍼진다. 피아니스트로 최혜지, 유예름, 김세연, 양다원, 김민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생상곡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남대 음악학과 관현악 전공을 수석으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름이 협연한다.

한편 아르플래닛은 올해 광주문화재단(목요콘서트), 북구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창단 기념 음악회로 관객을 만났으며 두 차례의 초청 피아노 독주회, 조인트 리사이틀 등을 펼친 바 있다. 오는 12월에는 자신들의



‘아르플래닛’

활동을 기념하는 기록·전시회도 12월 1~3일 전일빌딩 245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최혜지 대표는 “아르플래닛의 올해 마지막 공연인 ‘협주곡의 밤’은 한 해 동안 성장해 온 단체의 성과를 관객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전석 초대, 네이버 폼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극장 ‘베니스에서의 죽음 시네토크’

24일 ‘20세기 명화극장’ 시리즈

병에 걸려 쇠약해진 작곡가 구스타프 아센바흐(데크 보거드 분).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베니스로 여행을 온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던 아름다운 소년 타지오를 발견하게 된 뒤로 예술과 아름다움, 순수에 대한 구상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아센바흐는 청춘 시절 친구인 알프레드와 예술에 대해 논쟁을 펼쳤던 것처럼 다시 어떤 ‘정념’에 휩싸인다. 여행지에서 만난 소년은 과연 어떤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될까.

광주극장이 ‘베니스에서의 죽음 시네토크’를 오는 24일 오후 1시 40분 광주극장에서 진행한다. ‘월간클래식:20세기 명화극장’ 시리즈 11월 작품으로 선보이며 서울아트시네마 김보연 프로그래머가 참석할 예정이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71년작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토마스 만의 동명 소설을 각색, 구스타프 말러를 모델로 한 현대 음악 작곡가가 주인공 공으로 등장한다. 비스콘티 특유의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탐미주의가 어우러져 ‘만년의 결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데크 보거드, 비요른 안데레센, 실바나 망가노 등이 출연하며 개봉 해당연도 칸국제영화제에서 25주년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25회 영국 아카데미



‘베니스에서의 죽음’

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음향상, 의상상, 미술상 등을 석권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을 수상하며 탐미주의의 한 영역을 구축한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를 선보인다”며 “구스타프 말러가 뮌헨에서 베니스 리도라는 섬으로 넘어가면서 펼쳐지는 내용은 예술의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 사유해 보게 할 것이다”고 했다.

성인 1만 원, 청소년 9000원. 15세 이상 관람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문중 작가와의 대화

23일 의재미술관 세미나실

의재미술관에서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 박문중’ 전과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이 진행된다.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욱)은 박 작가와의 대화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의재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대담자로 나선다.

박문중 화가는 연진회 미술원 1기생으로 입문했다. 연진회 미술원은 의재 허백련 제자들이 주축이 돼 스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창설했다. 이번 전시는 연진회 미술원 1기생인 박문중 화가가 허백련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돼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작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8년 연진회에 들어갔다”며 “도제식 교육으로 진행됐는데 난초 그림을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그림으로 농사짓는 화가, 박문중’전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의재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박 작가의 작품 65점이 출품돼 있다.

이선욱 의재미술관 관장은 “무도산은 의재 허백련의 삼대 정신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연진회와 농업학교를 통해 지역 일꾼과 인재를 배출했던 의재선생의 철학이 응결돼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여울 광산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습 장면.

〈꿈여울 광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제곡〉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적 기량 펼치다

꿈의오케스트라 여섯번째 정기공연... 30일 광산문화회관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형 아동·청소년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이다.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무료 대여하며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도 무상이다.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소라)가 꿈여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여섯 번째 이야기: Dreams Come True’를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친다. 한 해 동안 서로 교감하며 성장해 온 어린 음악가 51명이 출연해 음악적 기량과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연주회다.

공연은 클래식뿐 아니라 영화·애니메이션 OST, 대중가요 등으로 채워진다. 막을 올리는 곡은 꿈여울 스트링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밥 필립스의 ‘Danza Espanola’이다.

이어 대중가요인 이무진의 ‘신호등’이 울려 퍼

진다. 꿈여울 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BTS ‘버터’, 비제 ‘아르르의 여인 모음곡 2번, 파랑’도 레퍼토리에 있다.

꿈여울 광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비비의 ‘밤양갱’,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 Op.51’, 브람스 ‘두 손을 위한 헝가리 무곡’ 등을 선사한다. 조니 빈슨 ‘디즈니 영화음악 메들리’, 클라우스 바델리 곡 ‘캐리비안의 해적 주제곡’도 울려 퍼진다.

한편 이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지난 5월 광산구청 ‘민관학 끈끈한 발대식’ 공연, 7월 장흥 향교에서 초청 연주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준형 음악감독은 “이번 공연은 꿈여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6년간 쌓아온 음악적 기량, 성장 과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단원들이 음악적 역량을 발산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